

3분기 리딩금융은 KB... '4조 클럽' 코앞

(KB금융·신한금융 연간 순이익)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2021년 3분기 누적(1~9월) 순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KB금융이 리딩금융 수성에 성공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자 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이익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5대 금융지주사가 2021년 3분기 누적 순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돼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왼쪽부터).

5대 금융지주 2021년 3분기 누적(1~9월) 실적

	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이자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KB금융	3조7722억 원	31.1%	8조2554억 원	15.6%
신한금융	3조5594억 원	20.6%	6조6621억 원	10.2%
하나금융	2조6815억 원	27.4%	4조9941억 원	15.3%
우리금융	2조1983억 원	92.8%	5조890억 원	14.9%
NH농협금융	1조8247억 원	24.9%	6조3134억 원	5.9%
합계	14조361억 원	33.3%	31조3140억 원	12.2%

투자·생활자금 등 가계대출 증가 금리 상승 겹쳐 이자이익도 급증 KB, 3분기 1조2979억...신한 제1 금융지주들, 주주환원·M&A 주목

●2분기 주춤, 3분기서 치고 나간 KB금융

5대 금융지주의 2021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KB금융은 3분기 1조297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누적 기준으로는 3조7722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2조8779억 원) 대비 31.1%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3조4552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신한금융은 3분기 순이익 1조1157억 원, 누적 기준 3조5594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년 동기(2조9502억 원) 대비 20.6% 늘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에서 신한금융에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는 KB금융이 3분기에는 분기 1822억 원, 누적 2128억 원 앞서며 확실히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지금 추세라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4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금융지주들 역시 호실적을 냈다.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9287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2조6815억 원으로, 올해 순이익 3조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금융은 3분기 순이익이 7786억 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2분기에 이어 다시 갱신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2조1983억 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92.8%에 달한다. 이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비은행 계열사인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NH농협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824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9% 늘어난 수치로, 올해 2조 클럽 가입이 점쳐진다. 다만 3분기 순이익은 2분기보다 1357억 원 줄어든 524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력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이 8월 말부터 가계 주택대출을 중단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금리상승으로 이자이익 급증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에 금리상승까지 겹쳐 핵심 계열사인 은행 중심의 이자이익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1조3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었다. 각 사별로 보면 KB금융 8조2554억 원, 신한금

은은 6조6621억 원, 하나금융 4조9941억 원, 우리금융 5조890억 원, NH농협금융 6조3134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8월부터 고강도 대출 쪼기에 나섰지만 9월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또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해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이익도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호실적 속에 금융지주들은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과 인수합병(M&A)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분기 배당의 경우 신한금융이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선제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도 분기 배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한지주가 3분기 배당을 하고 분기배당을 안정화시키는 시기에 우리도 배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관제정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수합병도 눈에 띈다. 신한금융은 10월 29일 프랑스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를 인수하며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인수로 신한금융은 그룹 내 전체 금융 계열사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내부등급별 승인 이후 자본 역력이 늘어나는 만큼, 약점으로 꼽히는 증권사와 보험사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신한은행-GS25,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 오픈

신한은행이 편의점 GS25와 손잡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사진)을 오픈했다. 양사가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ESG 경영 관점에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업무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다. 해당 지역 은행 업무 데이터와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과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21년형 스마트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은행원, 바이오인증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점포를 편의점 내 흡인속 형태로 구축했다. 회사 측은 "향후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점 은행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보호 강화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 명이다. 12월 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롯데카드, MZ세대 특화 '로카 라이킷' 출시



롯데카드가 MZ세대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 '로카 라이킷' 시리즈(사진)를 선보였다. 복잡한 조건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카 라이킷1과 2, 요식·배달업·커피 할인 혜택을 담은 로카 라이킷 잇, 주유·영화·스트리밍 할인 혜택을 담은 로카 라이킷 플레이, e커머스·미용실·편의점 할인 혜택을 담은 로카 라이킷 샵 등 4종으로 구성했다. 카드 디자인은 신용카드의 발상지인 1950년대 뉴욕 맨해튼의 모습을 담았다. 여기에 특화 혜택을 강조하는 일러스트를 더했다.

편집 | 신한지 기자 mythuki@donga.com

신세계사이먼·NS홈쇼핑과 맞손...유통업체와 협업 늘리는 삼성카드

신세계와 프리미엄 아울렛 할인 강화 NS홈쇼핑은 생활편의업종 혜택 제공

삼성카드가 유통업체와 협업 카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먼저 신세계그룹의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과 함께 기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삼성카드'를 업그레이드한 '신세계 아울렛 베네핏 삼성카드'를 내놓았다. 프리미엄 아울렛과 신세계그룹 관계사의 혜택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업종의 할인혜택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이용금액의 10%에 대해 결제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마트 계열의 할인점(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 24) 이용금액에 대해 기존 3% 대비 높은 7% 결제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커피전문점과 배달앱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각각 최대 1만 원까지 제공한다. 이상의 결제일 할인혜택은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

공된다. NS홈쇼핑과 손잡고 'NS홈쇼핑 삼성카드'도 출시했다. NS홈쇼핑에 특화된 혜택은 물론 생활 편의 업종, 생활요금 정기결제 등 일상 영역에 걸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S홈쇼핑 이용 금액의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편의 영역인 주유,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이용한 금액의 5% 결제일 할인 혜택도 준다. 할인 혜택을 생활 편의 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제공되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2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관리비,



신세계 아울렛 베네핏 삼성카드(위)와 NS홈쇼핑 삼성카드. 사진제공 | 삼성카드

4대보험, 이동통신 업종에서 자동 납부 1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건별로 1000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2일 (화) 음력: 9월 2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다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이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피로율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치게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p> <p>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p>	<p>행운색: 청색 길방: 동</p> <p>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p>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p>행운색: 청색 길방: 동</p> <p>시시한 일들로 인해 휘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라. 자신의 능력이 표출되는 날이다.</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뺨아기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p> <p>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필요하다는 흐려두어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부부싸움을 조심해야겠다.</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p> <p>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취업 운이 좋은 날이다.</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p>

오늘의 날씨			2일(화)		
서울 0/20	인천 0/20	춘천 20/20	7 15	8 15	6 16
강릉 0/0	대전 20/20	전주 20/20	9 17	6 17	8 17
광주 30/20	대구 0/20	부산 0/20	9 17	8 18	10 20
창원 0/20	제주 20/20	지역	9 18	14 18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